

'해랑 열차' 필두 철도관광 활성화 속도

남원시, 국내 유일 럭셔리 관광열차 운행 횟수 확대... 체류형 관광 플랫폼 자리매김

남원시가 코레일관광개발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럭셔리 관광열차 '레일쿠르즈 해랑(이하 해랑)'을 필두로 철도 연계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이번 운영 확대는 지난 2025년 3월 남원시와 코레일관광개발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실질적인 결실로, 양 기관은 남원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특히 남원시는 2025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KORAIL) 주관 '지역사랑 철도여행 어워즈'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되며 철도관광의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동력 삼아 2026년에는 프리미엄 관광지 유입을 더욱 강화할 방침으로, 오는 4월과 5월 매주 화요일 주 1회 정차를 시작으로, 6월부터는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로 운행 횟수를 확대해 본격적인 방문객 맞이에 나선다.

최고급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랑 열차는 서울을 출발해 남원을 첫 번째 목적지로 거쳐 순천, 부산, 경주를 잇는 전국 일주 코스로



남원시가 코레일관광개발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럭셔리 관광열차 '레일쿠르즈 해랑'을 필두로 철도 연계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운영되며, 방문객들은 광한투원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등 지역 대표 명소를 둘러보는 것은 물론, 지역 특화 음식과 비밀정원과 같은 로컬 카페를 연계한 힐링 코스를 통해 남원의 맛과 멋을 깊이 있게 경험할 예정이다. 특히 6월부터는 '국악의 성지'라는 지역 정

체성을 살린 참여형 판소리 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체험하는 관광'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서 만나는 국가무형유산 흥과 멋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개관 10주년 기념 기획공연 개최

익산시가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전통의 멋과 흥을 나누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익산시는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보존을 위해 조성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무형유산 공연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7일 오후 7시에는 제42회 이리농악 기획공연 '관 열교(GO) 두드리고(鼓)'가 무대에

오른다. 5월 16일 오후 5시에는 이리향제줄풍류 기획공연 '국제민족음악교류음악회'가 관객들과 만난다.

이리농악 기획공연은 호남의 흥과 신명을 담은 역동적인 무대로, 상쇠의 부포놀이와 소고춤을 비롯해 다채로운 진풀이가 어우러진다. 치밀한 리듬 구성과 뛰어난 기교를 바탕으로 호남우도농악의 진수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리향제줄풍류는 전국에서 익산과 구례, 단



두 곳에서만 명맥을 이어가는 전승취약종목으로, 지역 고유의 음악적 특징을 간직한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거문고와 가야금 등 현악기, 대금과 피리 등 관악기가 어우러져 여러 곡을 끊임없이 이어 연주하는 기악합주 조곡으로 깊이 있는 전통 음악의 매력을 전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남원시,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춤 플래시몹' 준비

남원시가 제96회 춘향제를 앞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퍼포먼스인 '사랑춤 플래시몹' 준비하며 축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제96회 춘향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대동길놀이 '춘향카니발'은 올해 '사랑춤 플래시몹'으로 그 대미를 장식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규모 참여형 콘텐츠로 기획되어 남원 전역에 축제 붐 열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국악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제작한 '사랑춤' 흥보영상이 SNS 등을 통해 공개되며 큰 호응을 얻어,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된 역동적인 안무와 감각적인 영상미가 어우러져 시민들의 축제 참여 의지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문화의전당, 코미디쇼 23일 공연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코미디쇼 '100가지 웃음쇼, 백쇼' 공연이 오는 23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KBS 공채 개그맨 송필근, 홍현호, 윤승현 등이 출연하는 전통 코미디쇼로 관객이 100번 웃으면 끝나는 신개념 공연이며, 다재다능한 개그맨들이 선보이는 웃음으로 관객들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공연료는 1만원이며 고창군민 특별할인으로 3,000원(청소년 1,500원)이다. 티켓예매는 16일 9시부터이며 인터넷 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http://ticket.gcac.kr>) 현장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진행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곶패

7부 '강패와 곶아' (4)

잘 모르겠어요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강남준과 박명희의 사연을 많이 들었다. 그들과 동식의 관계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배순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주소도 나 이도 모른다. 동식을 행복원에 데려다준 일도 벌써 35년 전 일이다.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는 일은 쉽지 않다.

만약 박명희가 아닌 배순옥이 동식을 낳았다면..... 강남준과 박명희는 동식과는 철저한 타인일 수밖에 없다. 아니면 강남준과 배순옥이 동식을 낳은 것일까. 상상은 여러 갈래의 안개 속으로 속절없이 뻗어나가고 있었다.

투이자 수녀에게 물어보자. 그녀가 배순옥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 않나. 동식은 차를 몰아 호암마을로 향했다.

경찰 조사가 언제 끝날지 몰랐기에 오늘은 봉사활동을 쉬겠다고 보호관찰관에게 말해놓았는데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

무엇보다도 투이자 수녀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동식을 그냥 쉬게 만들지 않는다. 봉사활동이 아닌 투이자를 만나기 위해 호암마을로 가는 것이다.

"배순옥 씨요?" 투이자는 잠시 머리를 가볍게 흔들면서 기억 속을 뒤지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마을에 살았던 분도 아닌 것 같고요. 이장님에게 물어볼까요? 배순옥 씨는 분을 알고 있는지요?"

투이자는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넣었다. 잠시 통화를 하더니 전화를 끊고 실망스런 표정으로 동식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장님도 모르는 분이라고 하네요."

"지난번에 강남준 씨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과 맹인 무당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 맹인 무당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투이자는 미안한지 괜히 얼굴에 미소를 울리고 고개를 저었다.

"그냥 맹인무당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지 이름은 몰라요. 물론, 만난 일이 있긴 하지만요."

남패가 아닐 수 없다. 투이자 수녀가 어떤 실마리를 선볼할 거라 기대했는데, 오로지 동식의 힘으로 박명희라는 인물과 배순옥이라는 인물을 찾아야 한단 말인가.

박명희가 무당이었다면 배순옥도 무당이 아닐까. 배순옥보다는 맹인 무당이라는 박명희를 찾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물론 죽었지만 고창 바다에 맹인무당이 떴이나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되었겠는가. 하지만 이미 35년 전 일이다.

동식은 뜬눈으로 고창을 점잖이나 무당집을 찾아가 배순옥이나 박명희를 아는 지 몰랐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다.

읍내에 있는 점잖이나 무당들은 대개 50대 전 후반의 사람들이었다. 대체로 35년보다 더 짧은 기간 무업을 해온 사람들이 모양이었다. 적어도 40년 가까이 무업을 한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그러다, 무장면 율리리 봉림마을 강정근이 말했던 박명희의 외가가 생각났다. 외가는 부안면 용산리 연기마을이라 했다.

연기마을에 가면 박명희나 배순옥에 대한 단서가 나올지도 모른다. 동식은 곧바로 용산리 연기마을로 차를 출발시켰다.

용산리 연기마을은 양옆에 높은 산들 사이로 형성된 작은 마을이었고, 마을 뒤에 커다란 저수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앞에는 인천강이 흐르고 있었다.

소요산과 선운산, 경수산에 둘러싸인 마을이었는데 풍광이 참 좋다는 인상을 가지며 동식은 마을로 들어섰다. 경로당을 찾아갔다. 35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노인을 찾으려는 것이다.

경로당 앞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자 인자하게 생긴 노인이 경로당에서 나오다가 동식을 발견하고는 눈길을 쫓았다.

"어디 찾으시요?"

복장은 하얀 추리닝에 백색 운동화를 신고 있어 건달의 표상이었지만 얼굴 표정과 몸짓만은 최대한 공손하게 보이려 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이 동네에 살던 분에 대해서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목소리도 당연히 공손하게 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